

偶像 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 (二)

맑스主義者의 一顧를 要함

權九玄

맑스主義의 要點이 『個人的 否定』에 잇슴은 맑스主義가 안인 筆者로서도 肯定하는 事實이다.

그럼으로 個人的 功績과 함께 個人的 氏名을 過重視함은 이것이 個人的 價値觀에서 出發한 既成社會의 個人的 論理觀念이니만치 맑스主義者의 立場 으로서는 이와 가튼 觀念은 一舉에 拒否할 것도 또 拒否하지 안하면 아니 될 것도 우리는 了知하는 事實이다.

如上함에도 不拘하고 實際 맑스主義者들은 그의 宗旨에 背馳되는 觀念 乃至 行動을 種種 取하는 觀이 有함은 그 理由가 那□에 잇는가? 이것이 門外 漢인 우리들의 錯覺的 觀察이라하면 多幸이려니와 萬一 저들 맑스主義 學徒의 認識不足症의 나머지라 하면 그야말로 저들을 爲하여 哀惜之嘆을 마지 못할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觀察에 依하면 『맑기스트[마르크시스트]』의 如上한 認識의 錯誤는 前記한 一個 思想團體에 쏘만이 아니라 勞農露西亞에서까지 果敢히 犯하고 잇스니 더욱 痛嘆할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十一月 九日附 東亞日報紙의 報道에 依하면 明年度부터 實施된다는 勞農露國의 新□은 五日一調制로 定하여 日曜와 土曜를 廢止하는 同時에 月, 火, 水, 木, 金曜日의 舊稱을 『맑스 데이』·『레-닌 데이』·『인터 데이』·『工化 데이』·『콤문 데이』로 改稱한다 하엿스니(詳細는 東亞紙 參照), 적어도 全國적으로 □時代의 共產社會를 建設하엿다는 所謂 勞農露西亞로서 맑스 데이, 『레-닌 데이』 등의 稱號를 付與하여써 一個의 맑스나 레-닌의 氏名을 그다지 過重化할 必要가 무엇인가? --不得已한 事情에 依한 것이라 할망정 저 新經濟政策의 摘用만으로도 露西亞의 革命이 不充分한 것인 것은 勿論이 거니와---맑스主義를 地上에 實現하엿다는 露西亞 『볼세뵈기[볼세비키]』의 妄發은 이것뿐이 아니다.

일즉이 『페드로그라트[페트로그라드]』를 『레-닝그라트[레닌그라드]』로 改稱하여써 레-닌의 氏名을 都市에까지 適用하였스며(피-더大帝의 일홈을 부친 『페드로그라-트』를 『레-닝그라-트』로 改稱함은 結局 異樣同質이다.), 또 씨노뷔예프[지노비예프]를 爲하야 『씨노뷔예프大學』의 名稱이 잇고, 트로츠키를 爲하야 『트로츠키-記念市』가 잇다.